

#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 21면에서 계속

아단법석들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대장장이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대장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풀무질을 해서 불을 피워야 뭐라도 만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두 살아 계시고 그러니까 "아이구! 목은 빛 같으라 자식들은 웅기종기 있으니가 햇빛 주라, 이거 참 정말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하고 선 한숨을 후 내쉬고선 손을 흑흑 불면서 불을 피우노라고 풀무질을 하는데 임금이 순화하시다가 답 밑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은 빛을 갠으라 햇빛을 주라.' 이 문제를 아무리 궁리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신하를 시켜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어요. 불러와서 "새벽에 불을 피우면서 한 소리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낳아서 길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제가 죽도록 갠아도 못 갠 목은 빛입니다. 그래서 '목은 빛을 갠으라 햇빛을 주라, 이거 참 살기가 어렵구나!' 했습니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상놈의 풀무쟁이 신분을 꼭 지켜 주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요. 그래서 농사 짓게끔 논밭지기를 떼어 줘서 평민으로 살게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한 생각이에요. 그걸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은혜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인간의 몸뚱이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몸뚱이가 한 칠 나리 나온 겁니다. 한 칠 나리 한 칠 날 동안에 이 도리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렇게나 영불이나 하고 목탁이나 친다고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형상의 부처님과 형상인 자기가 틀어 안 붙어 있는 스님이라야 목탁을 한 번만 쳐도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 따로 있고 스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이런다면 목탁을 천만 번 쳐도 천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무(無)의 세계의 뜻을 알려면...

**문** 이 세상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뜻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연화장불(蓮華藏佛)' 이라든 아주 최고의 한울을 꿰뚫어서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인이라는 뜻

도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은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계도 있고 불계도 있고 또 더 큰 은혜계도 있고 또 더 큰 은혜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소속된 은혜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은혜계 속에 있는 우리 생명력들은 사분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집착한 데서 사는 거나 물에서 사는 거를 한 부분으로 치고, 또 나무를 풀들을 한 부분으로 치고, 날아다니는 거 또 땅을 딛고 다니는 거, 이렇게 네 분류 속에서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집착한 데서 낳는 거, 화(化)해서 낳는 네 가지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생명이 한데 합쳐진 마음, 즉 공존하는 그 주장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름해서 사왕천(四王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지, 총 합해서 지도를 하는 자가 사왕천이라고 이름해서 붙인 겁니다. 이름해서 붙였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갈 수 있고 광력이나, 전력, 자력, 여러 가

지만 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스럽습니다. 지금도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오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만나고, 스스로 교차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여러분 자유자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고달리지 말고 모든 것이 바로 내 근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전부 여러분의 한마음이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빛보다 더 빠른 누진통(漏盡通)으로 인해서 천체무전통신기처럼 광력이나 전력에 종합된 에너지가 바로 저 은혜계로 통하게 됩니다. 은혜계의 별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바로 직속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無)의 세계의 한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상봉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안테나는 근본의 전체 통신을 할 수

행선(禪)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왜 잘 써야 하느냐? 여러분이 한 번 잘못 쓰면 이 몸뚱이 속에 업식으로 뭉쳐집니다. 저지른 대로 업식이 돼서 내 몸뚱이에 뭉쳐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잘못되는 것도 업식으로 뭉쳐져 있는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걸 뇌라, 맡겨 뇌라,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복일 수밖에 없다.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이 재밌게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있는데 시켜면 게 거기를 죽 앓아있어도 여러분은 눈이 멀어서 못 봐, 잠시 잠깐 웃고 즐길 거러면 그게 뭐냐?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에 그 업식으로 인해서, 업식을 가지고서 여러번한테 참나 참나 닦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오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고 사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면에 생명체들이 가득

**답** 아주 간편하게 나무로 비유를 하죠. 나무를 보면 모습은 다 각각씩으로 다르지만 뿌리는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죠? 저 나무들의 뿌리가 같습니다. 꽃나무든 버드나무든 소나무든 간에 각 나무는 바로 자기 뿌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없으면 잎새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역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생명의 근본, 주인공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고 움직여지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떻게 믿느냐 하면 저 형상을 믿고 말합니다. '형상을 믿고'라는 말은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상태를 믿어서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마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력이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공경하고 스님네들한테 옷을 해 주고 밥을 해 주고 절을 지어 줬는데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복이라고 그러느냐? 내 나무는 내 뿌리라고 정맥 동맥이 상통하듯 그렇게 돌아갑니다. 뿌리와 나무가 위에서는 공기, 태양,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아래에서는 땅의 지기와 철분과 황분과 수분 모두를 흡수해서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하는 겁니다. 한쪽만 있어 가지고는 다른 한쪽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게 물질세계의 한쪽만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물질세계 50%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신세계 50%가 부족하죠. 즉 말하자면 사람이 동맥이 있는데 정맥이 없거나 정맥은 있는데 동맥이 없거나 이런다면 아예 사람 구실을 못하죠. 그렇듯이 내가 내 뿌리를 믿어야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뿌리를 믿지 않고 내 나무가 울창한 편 나무를 보고 '아이구! 저 나무! 저 나무가 울창한 편 나무를 보고 에너지를 좀 주었으면... 나를 잘되게 했으면...'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그 나무에서 이 나무로, 이 나무 뿌리로 올 수가 없거든요. 이 나무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또 편 나무 뿌리가 이쪽 나무를 도와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이웃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먹고 싶으면 조금 줄지언정, 즉 복은 조금 있을지언정 공덕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자제해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몸을 가지고 한 칠 나는 건데 그 한 칠 동안에 어떻게 해야 옳으냐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복으로 하는 건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복으로 한다면 주변 동네에서 썰이나 몇 닢씩 얻어먹을 뿐이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무는 내 뿌리를 믿고 내 뿌리만 믿고, 내 주인공 뿌리만 믿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모든 식구를 다 함께 살게 할 수 있다.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불이 켜져서 밝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빠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좋아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쁜 것을 습관적으로  
나쁘다고만 하지 않는 것이  
넓은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지 힘이 서로 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난다면 원심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원심력을 얻는다면 그 원심력은 어떻게 해서 원심력이 될까? 그리고 사무사유(四無四有)라는 그 뜻은 뭐냐? 죽은 사람들의 마음, 산 사람들의 마음이 둘이 아닌 그런 뜻을 가지고 사무사유 한데 합쳐져,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마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無)의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영령들, 그 처절한 영령의 참혹한 일들, 이름 해서 부를 수 없는 일들, 또 산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혹하고 처절한 영령들, 죽은 사람한테 악이든 악, 선이든 선 그렇게 집입을 해서 인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독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고, 팔자 운명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이름이 속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팔자 속 운명 속 업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왕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얻는 것은 악이나 선이나 다 놓는 것뿐인데 여러분은 "나는 놓을 수 없다."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어려우냐?' 고 나는 그러죠. 그게 아주 아리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렵다고들 그러

이고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심안이 밝아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고 감도 없는 육신은, 이것이 천백(千百)으로 화(化)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의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려서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구, 내가 짚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해서 안 되는데...' 하고 꼭 후회하 들어가고 반성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데는, 정말 나를 깨닫는 그 길을 택하려면 후회도 반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없는 거다' 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근본 주인공 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직속으로 같이 상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각각 논다던 이거는 정말이지 여러분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만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되는데만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 재미요, 그것이 참선이요,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생명체들이, 의식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한 부분만 파악이 일어나도 지금 그 집합소는 무너져요. 이게 집합소거든요. 나의 집합소!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이끌어 가는 선장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과거로부터 생긴 건데 그 업식들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번뇌다. 의식들이 모두 마구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못 되지요. 그 악업 선업의 업식들이 없었더라면 내 영혼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쁘다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좋아도 좋아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죠. 알고 보면 그렇게 묘한 법입니다. 나쁜 것을 습관적으로 나쁘다고만 하지 않는 것이 넓은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 똑같은 기복이 아닌지요

**문**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는 거나 법당에서 부처와 보살에게 정성을 들여서 복을 바라는 거나 똑같은 기복이 아닌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요?

거룩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 세계를 장식하는 또 하나의 명서 출간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과 불교를 증득한 수 많은 붓다님들은 유무를 초월하여 무아 속 절대 세계에 빛의 존재로 여여히 계시며, 사후세계와 지옥·극락 그리고 육도윤회는 존재한다.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314쪽 / 15,000원

- 재대한현 크스님께서 30여 년간의 치열한 연불수행을 통해서 얻은 붓다의 경지를 21세기 최고의 초신성으로 새내려간 미증유의 성서(聖書)  
- 21세기 전세계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우주역사에 길이 남을 불교 수행 및 사상의 기념비적 금자역이며 전대미문의 성서(聖書) **영문판 출간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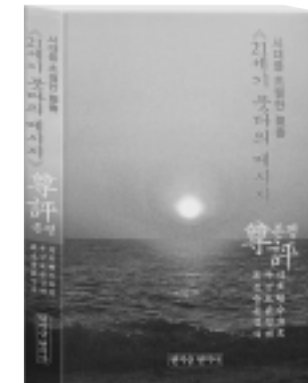
거룩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 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536쪽 / 15,000원

- 영산불교사상연구소에서 동서고금 종교 명상 철학 서적 약 1천 여 권을 읽고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열독하면서 법법(法法)에서 초신성으로 새내려간 불후의 명작(名作)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



512쪽 / 15,000원

- 탁월한 식견과 지견(智見)을 겸비한 6인의 대석학들이 수놓은 인류 최고의 지적 통찰이 담긴 전대미문의 역작(力作)

### 영산불교 현자궁에서 출간한 세 권의 서적에 대한 총평

- 독자계현들이 이 세 권의 서적을 수 차례 정독한다면 눈부시게 빛나는 거룩한 부처님의 세계를 마음 깊이 감득하게 될 것입니다.
- 찬란하고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시종일관 법원 속에 머물도록 할 것입니다.

- 이 세 권의 서적은 21세기 최고의 종교인 불교의 그랜드 비전을 응시할 수 있는 광대한 명안(明眼)을 구축하게 해줍니다.
- 인류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종교로서 불교가 갖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전세계 모든 영성세계와 종교명상서적이 지향해야할 총체적 가르침의 시금석(Touchstone)을 제시하고 있습니다.